

70% 이상의 인구가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한국 정부가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여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라고 한다. 아스트라제네카(1000만 명분), 안센(600만 명분), 화이자(1000만 명분), 모더나(2000만 명분) 그리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1000만 명분)으로 총 5,6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2021년 1월 20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시 백신의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한 달 후 2차 접종시에 전체 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90%의 효과를 본다고 한다. 그러나 임상 실험 데이터에 절반 용량을 받은 그룹은 너무 작아서 또 55세 이상의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영국 규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30일에 4-12주 간격으로 두 번의 전체 용량 사용(62.1% 효과)만을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 온도(2-8°C)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해 접종이 훨씬 수월하다.

안센 백신은 올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접종할 예정이며, 안센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1회만 맞아도 되고, 실온 2-8°C에서 6개월까지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섭씨 30도 이상 고온지역에서도 6시간 동안 약효가 유지해 접종 준비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 후 4주 후 2차 접종하는데 94%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운송하기 위해 영하 20°C에 보관해야 한다. 모더나 백신은 정상 냉동고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해동 후 최대 30일 동안 냉장보관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95% 이상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 다만 화이자 백신은 운송·보급하기 위해 극저온 70°C에 보관(6개월 정도 안정)해야 하며 드라이아이스 보관배송시에는 15일 정도 안정적이다. 해동 후 백신 한병을 1.8ml의 식염수로 희석한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처럼 유통 보관이 까다로운 백신은 전국 250여개 보건소를 거점으로 백신 접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하는 냉동고의 경우 현재 의대 연구실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제품이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 고령환자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물량 150만 도스가 2월 중 들어오면 절반인 75만 도스를 요양병원 고령환자, 요양병원을 포함한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1회 접종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 75만 도스는 예상치 못한 백신 공급 차질에 대비해 2차 물량이 국내 도입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동아일보 2021.01.21)

백신을 해외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은 국토교통부, 국내 운송은 국방부, 초저

온 냉동고 수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추진단·지역협의체 구성, 위탁의료기관 및 접종센터 후보지 선정 등을 담당한다. 백신 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은 약 1만곳, 접종센터는 25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안센의 백신을, 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지정된 병원 2만곳 중 적정한 곳 1만곳을 정하고 접종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News1 2021.1.21)

모더나 백신 접종 후기

장항준(미국 내과 보드/화학 박사, 예스24 메디컬 커리어 센터 원장)

전세계가 코비드 19판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중환자실 마비 경제 붕괴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미국에서 메신저 RNA vaccine 두 가지가 지난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임상 3상 실험을 통해서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비온텍 코비드19 백신은 거의 95%에 이르는 뛰어난 코비드19 예방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되었지만 화이자 백신의 경우 각국에서 심각한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보고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말 안심하고 이러한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 문의하셔서 본 영상 강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27일에 뉴저지 임글우드 병원에서 모더나 코비드19 백신 일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은 화이자/비온

텍 백신과 거의 유사한 지방 나노입자가 메신저 RNA를 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접종 후 처음 4시간은 통증도 없고, 부종 및 전신 증상이 없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 후 6시간부터 접종한 부위가 서서히 부어 오르기 시작했고 빠근했지만 작년 11월에 맞은 독감 백신에 비해서 현저히 경미했습니다. 접종 후 2일째부터 약간 피곤하고 경미한 근육통이 있어서 이부프로펜 600mg 복용했더니 몸살 증세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접종 후 3일째부터 약간 피곤하기 시작했고 몸살 증세 접종부위 부종은 경미하게 계속되었으나 독감 백신에 비해서 월등히 경미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종 후 4일째, 전신증세는 모두 소멸했고 접종부위 부종은 거의 사라졌으며 몸 컨디션은 최상이었습니다. 저와 친한 지인들 약 10명 정도가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모두 경미한 부작용 외에는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 2021년 1월 18일, 뉴욕에서

이후 코로나 변이-변종 바이러스에도 인류가 살아 남기 위해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 더 강하다고 알려진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9월 처음 발견된 뒤 프랑스 등 유럽 곳곳을 비롯해 미국 등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의학계 공중보건 감염병 전문가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 생기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이전 독감과 같은 풍토병처럼 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독감백신이 나왔어도 독감(인플루엔자) 종식이 안되고 있듯이,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제 인류생존의 유일한 희망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장 2절)."라는 성경 예언을 이루는 주인공에 분명해졌다.*

제명	공급량	계약 현황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 (1천만 명분)	11.27 계약 체결 완료
안센	600만 회분 (600만 명분)	12.23 계약 체결 완료
화이자	2천만 회분 (1천만 명분)	12.23 계약 체결 완료
모더나	4천만 회분 (2천만 명분)	12.31 계약 체결 완료
코백스 퍼실리티	2천만 회분 (1천만 명분)	10.9 협약 체결 완료
총 5,600만 명분		

※1월 4일 현재 기준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정도령 애면 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이 책을 만나리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1>
“이긴자가 건설하는 하나님의 세계”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 별나라를 오갈 수 있게 된 것은 사람이 원래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던 하나님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00년 전 하나님이 마귀의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처럼 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사람의 몸으로는 날 수가 없다. 영생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마귀의 신을 제거하면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 변화되면 빛으로 화하게 된다.

이제 이긴자가 나타났으므로 머지않아 찬란하고 멋진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긴자가 건설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이요, 유포아인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시상하부(視床下部)2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키우려면, 시상하부를 알아야 합니다. 면역의 총사령관 뇌가 면역과 항상성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운동을 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집니다. 단기 스트레스 반응이든 장기 스트레스 반응이든 결국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대응합니다. 단기 스트레스 반응에 사용되는 포도당은 탄수화물, 장기 스트레스 반응에 사용되는 포도당은 단백질과 지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혈당량을 높이는 마 찬가지입니다.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각입력은 신속한 행동으로 도피 반응을 만들어 냅니다. 그 상황을 우선 피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난 후 그 자극을 자세히 살펴볼게 됩니다. 신경시스템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관한 감각입력은 시상상을 거친 후 편도체에서 즉각적 행동으로 출력하며,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자극은 시상에서 감각피질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다중적으로 처리합니다. 일차각각 피질에서 연합각각피질로 시각, 청각, 체감각의 개별 감각이 더욱 세부적으로 처리되어 다중연합각각영역으로 하나의 대상에 대한 모든 감각이 모입니다. 그리고 안와전두엽에서 그 감각에 대한 정서적 평가인 느낌을 생성합니다.

변연계는 편도, 시상하부, 시상, 전대상회, 해마가 상호연결되어 공포자극을 학습합니다. 공포에 대한 조건학습은 동물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공포에 싸인 감정은 편도에 기억되지만, 해마는 공포 반응의 배경을 기억합니다.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전전두피질은 기억을 비교하여 전개별 상황을 예측하죠. 그래서 해마와 전전두피질의 경험학습을 바탕으로 위협자극에 대한 반응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동물은 항상 공포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인간은 두려워하면서 상황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시상에서 편도체의 경로는 즉각적인 자동반응과 무의식적인 본능적 반응을 신속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조금 더 지연된 시상에서 신경질의 경로는 숙고된 인지적 반응을 만들어서 행동에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시상에서 편도체로 가는 적은 내용의 빠른 신호는 시상에서 신경전달보다 12밀리초 정도 빠릅니다. 이 짧은 시간의 차이로 위협을 피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에서 신경질로 가는 신경연결이 신경피질에서 편도로 입력되는 연결보다 강하지요. 인간은 대략 200만 년 전 호모 에르가스테로부터 신경질이 급격히 늘어나서 호모 사피엔스로 이르는 진화가 가속되었습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인간의 신경질은 전전두엽이 거의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의 경로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신피질 세포들은 중배엽, 부신수질에 있는 세포들은 외배엽에서 기원하는 신경능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부신수질은 물고기에서부터 인간 뇌까지의 진화를 추적하는데 주목해야 할 기관입니다. 부신수질을 원초적인 뇌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수질에서도 뇌에서처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외부에서 감각자극이 들어와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변연계 회로를 통해 감정이 만들어지고, 이 감정에 대한 반응이 시상하부를 거쳐 운동으로 표출됩니다. 한마디로 시상하부는 본능적 감정을 운동으로 표출하는 신경핵들과 신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신경핵들의 집합입니다. 우리 몸의 내부환경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를 돕는 것은 나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부지런히 뇌활동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2003년 사스(SARS)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구세주 조희성님의 광로의 능력으로 한반도로 침투하는 사스바이러스를 박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괴질이 돌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도 괴질이 들어와 많은 사람을 해칠 것이지만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승리제단 식구들은 괴질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모조리 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세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괴질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